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(6.4.)

-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여름철이 되면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
 - 기상청에 따르면, 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, 국지성 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
 - 과거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배추·무 가격 급등, 과채류 작황부진, 과수 낙과피해, 가축 폐사 등이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.

- 다행히 올해는 전·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한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보하였고, 현재까지 작황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. 특히,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했던 축산물도 머지않아 공급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 - 그러나 여름철 기상상황에 따라 수급여건이 수시로 급변할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.

- 농식품부는 기상 이변에도 수급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「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」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먼저, 차관을 반장으로하는 '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'을 구성하여 기상 변화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, 위기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.

- 품목별 수급안정 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.
 - 배추와 무는 정부비축 등 총 2만8천톤(배추 22천톤, 무 6천톤) 규모의 정부운용물량을 확보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.
 - AI로 인한 피해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케이지 교체 등이 맞물려 계란과 닭고기 등 공급이 부족하지만 7월 이후에는 공급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부화용 종란 수입을 통해 폭염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- 또한, 가격상승 품목과 대체소비품목에 대해서는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 - 특히,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별할인행사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폭염·가뭄·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.
 - 원예시설과 축사에 차광제, 쿨링패드, 송풍팬 등 온도저감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,
 - 병해충방제와 긴급 급수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.

-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-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세심하게 대응하여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
해양수산부 장관 모두발언(6.4.)

《 안전1.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관련 》

- 수산물 역시 중동전쟁, 고수온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계속 물가동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, 할인지원,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.

《 안전2 여름철 폭염·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관련 》

- 이어서, 「여름철 폭염·호우 대비 수산물 수급안정방안」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.
- 고수온·적조 등 여름철 어업재해로 인해 다량의 양식수산물이 폐사하면 수산물 수급·가격에 상방압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- 해수부는 철저한 사전 예방, 신속한 재난 대응, 합리적인 사후 복구를 통해 여름철 수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「2026년 고수온·적조 종합대책」을 마련했습니다.
- 역대 최대 규모의 대응장비 사전 보급,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어업인의 소중한 일터를 지킴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식탁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《 안전4.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관련 》

- 다음으로는 「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」입니다.
김은 작년 11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.
- 이렇게 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물김 양식 등 김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고 수급 조절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 수단도 부족하여 김의 국내 물가 불안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.
- 이에, 해양수산부는
지난 1월부터 정부, 업계, 지자체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김 수출 공급망 혁신 TF를 구성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오늘 발표하는 혁신 방안은
 - ① 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견고한 생산 기반 구축,
 - ② 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정책 수단 도입,
 - ③ 김 가공산업의 AX와 마른김의 등급제·거래소 도입,
 - ④ 산업 체질 개선 등 4가지 주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김 수출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고,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김 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.